

서울당서초등학교 2학년 3반 61번 이현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두발자전거 타기 (야호~ 키블 들었다.)

5월 5일 어린이날에 두발자전거를 샀다. 네발자  
전거도 안 타보고, 세발자전거는 이럴 때 타서  
기억도 안 낸다.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 
거와 거의 똑같다. 맨 처음에는 엄마가 잡아주어도  
아주 못 탔다. 2일째 역시 못 타. 으앙. 3일째.

우와, 갑자기 들었다. 실력 덕분인가? 4일째. 5일째.

6일째. 우와~ 7일째 다몽 바로~ 오늘몽 오늘은 바  
로 키블 들은 날이야몽 야호~ 키블 들었다고

엄마에게 사랑하 주셨더니, 칭찬을 받았기몽

우리 엄마는 화를 많이 나서, 남마한테 칭찬  
받는데 정말 좋아서 그렇다. 다음에는 배들이랑

하는 시합에서도 1등을 할 정도로 잘 하고 말테야  
몽 각오해몽 애들아몽